



## 농림부

## 2006년도 주요 축산정책 추진계획 발표

농림부는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목표로 한 2006년도 주요 축산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우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소비 증가 추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기회요인을 살리면서 시장개방 확대·환경문제·가축질병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지속 확보, 친환경 축산업 확산, 가축질병 방역 강화, 한·미 FTA에 대한 체계적 대응, 수출 확대 및 신성장 산업 발굴·지원 등이 올해의 중점 추진사항이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72P 참조).

## AI 특별방역대책 마무리 및 평시방역체제 전환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조치를 2월말로 마무리하고 3월부터 국내방역은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국경검역 활동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월 27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특별방역기간(2005. 11~2006. 2) 동안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 검색, 신발소독 등 검역과 닭·오리 사육농장의 소독 등 방역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AI 유입을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철새 등 야생조류와 사육하는 오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AI 청정국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접국에서 AI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지역까지 확산됨에 따라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구제역 특별방역과 연계하여 예찰활동 등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AI 특별방역대책 향후 추진계획〉

- 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과 연계한 국경검역 지속 실시
  - 공항·항만 검역관 증원배치 및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휴대육류 검색 및 여행객 발판소독·홍보 등은 지속 유지
  - AI 비발생국산 신선·냉장·냉동 수입가금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평시대로 정상화하되, AI 발생국산(중국·태국)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체제는 지속 유지
- ② 도축장 출하오리 대상 모니터링 지속 실시(3~10월, 10천건)
  -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이나 유럽 지역의 야생조류(철새)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평시에도 사육 오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 ③ 오리·철새·야생조류 예찰 결과를 OIE에 통보
  - OIE 규정상 야생조류에서 AI 감염 사실은 의무적으로 통보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유럽의 상황을 고려, 투명성 확보 필요
  - ※ OIE에서는 '사육하는' 조류에서 H5나 H7형 또는 기타 고병원성 AI 감염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규정
  - 다만,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한 혼란 소지가 있으므로 홍보는 자제

- ④ 철새 예찰 연구구역 결과에 따른 방역방안 검토(검역원)
  - 2005. 7. 1~2006. 6. 30(1년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성환우 교수)에서 추진중인 철새 종류별·계절별 시 감염실태 조사사업 마무리
- ⑤ NSC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대응훈련 실시(4월)
  - 2006. 4월중 구제역 특별대책 가상방역훈련(CPX)과 연계하여 실시

### 농·축산경영자금 3조3,000억원 농가 지원

농림부는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 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3조3,000억원을 3월부터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단기 저리(1년이내, 연 3%)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 자금은 농가가 마을별 영농회 등을 통해 영농규모에 따라 희망대출액을 신청하면, 일선조합에 구성된 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실한 중소기업 농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금차입이 유리한 건실한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에 대하여는 기존 대출금의 대환은 허용하고, 신규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대출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유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퇴자·임대인 등 비 농업인에 대한 대출과 소요경영비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농지원부 및 가축자 가사육확인서 등으로 영농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농가당 소요경영비를 전산으로 산출하여 산출된 경영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평균 호당 평균 350~450만원 정도의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제도개선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이 영농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02)500-1698 농림부 협동조합과

### 축산물브랜드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농림부는 브랜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까지만 브랜드사업 대상 경영체를 선정해 총 80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를 2013년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지난 2월 10일 축산물 브랜드 중장기발전계획 브리핑에서 "80개 정도의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품질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또한 "지원 경영체의 연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경영체에게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도 추가 지원해 선의의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기존 브랜드경영체 상호간 브랜드경영체 인근지역과 통합 등 브랜드경영체의 규모화를 위한 광역브랜드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브랜드 인증도 올해 한우·돼지에서 육우·육계까지 4개 축종으로 확대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한·미 FTA 저지 '비대위' 구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월 7일 조찬모임을 갖고,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긴급 조찬 모임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이 축산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비대위와 함께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별도로 구성, 앞으로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비대위를 출범시킨 축산단체장들은 지난 1994년 UR협상 때처럼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을 내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입체적인 대응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1천만 서명운동도 전개키로 하는 등 국민과 더불어 축산인들의 뜻을 결집, 한·미 FTA 협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축산단체장들은 비대위 구성을 마친 후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농림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 예상 규모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적게는 3천억여원에서 많게는 9천억여원으로 발표한 것을 놓고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맹비난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의결**

**대의원 중 결원발생시 축산단체 보궐선거 실시**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등으로 정했다.

**정부, '식품안전처' 7월 발족 추진**

**분산된 식품안전관련 기능 전면 통합**

정부가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가칭)'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월 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 유시민 복지부 장관, 오거돈 해수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과 청와대 황인성 시민사회, 문재인 민정,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속한 당정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련 기능을 전면 통합해

차관급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처 신설시 식약청을 폐지해 복지부로 흡수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관련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월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부문 지원 위해 119조 투융자 전면 재검토**

**한 부총리 “올해부터 4~5%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등을 거치면서 마련한 약 119조원 정도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부문이 관세자유화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상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시장을 통합하고 개방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미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은 13조9,000억원, 수출은 7억불, 고용은 10만 4,000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한 부총리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1월말 현재 295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여건이 개선돼 정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IMF 이후 들쭉날쭉한 성장에서 올해부터는 4~5%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방 위험도 존재하므로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 기조는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국제공항에서 홍보캠페인 개최**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어 유럽 및 아프리카지역에 이르기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초유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가간 교류증가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와 더불어 구제역 재발 위험이 높은 3월~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범정부적인 국경검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에서는 지난 2월 28일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올해 공무원 80명 특별채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80명의 국가공무원(수의7급·가축위생연구소) 특별채용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채용분야는 수의7급 63명, 가축위생연구소 17명이며,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영어), 3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를 거쳐 5월부터 임용될 예정이다.

또한,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3월 6일부터 10

일까지이고, 필기시험은 3월 31일에 실시한다. 그리고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접시험은 4월 18일에 실시, 4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이 확대되면서 수의7급 4명, 가축위생연구사 1명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분모집하며 장애인 응시연령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연장된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vrqs.go.kr>

### ‘국경검역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해 홍보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우병 없는 청정한국’이라는 주제로 3분 내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해 오는 4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 발표는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http://www.nvrqs.go.kr))를 통해 5월 15일(월)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에는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이, 우수상 2명에게는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5백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품은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축산관련 단체 등에도 배포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 현장예찰용 휴대용 단말기(PDA) 사용자 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월 27일~28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소재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45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방역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현장예찰용 PDA 사용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가축전염병 현장예찰용 PDA 사용법에 대한 기술 전수 1차 교육을 실시하고 2개월간의 시험 운영기간동안 보완 및 개선된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실무자들과 시스템 운영 관련 상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PDA를 활용한 현장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검역원에서 개발한 현장예찰용 PDA는 방역담당자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입력한 각종 질병 예찰정보가 무선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역기관에 송수신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에서는 전염병의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방역관은 해당 지역이나 농가의 질병관련 정보와 지리적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분석이 가능하므로 질병 예찰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여 가축 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역원에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며,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2006년에도 가축 전염병 예찰용 PDA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06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2월 27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안)과 감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방역본부의 사업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조직운영·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인사, 복무, 자산관리 등 개선된 제도의 정착에 역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의식을 고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국 4부에서 1국 3팀으로 전환·운영했으며, 현장방역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와 인력재배치로 효과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했다.

방역사업 실적으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기여, 주요악성전염병의 조기근절을 위한 시료채취사업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초과달성 등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본부의 지난해 예산결산액은 축발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백23억3천3백만원이다.

한편 이날 신임 감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근무했었던 정세원씨를 선임했다.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직개편 단행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2월 22

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부 조직을 3부 8팀에서 2본부 6팀으로 통합 개편하여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개편 주요내용은 본부 조직을 현행 3부(경영지원부, 등급기술부, 홍보전산부)를 2본부(경영지원본부, 사업본부)로 슬림화하고, 8개팀을 6개팀으로 2개팀을 축소 통합·조정함으로써 팀제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부의 확고한 '팀' 제의 조직으로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더불어 현행 1급에서 3급까지의 보직체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에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였다.

다단계 계선조직의 경직된 조직형태를 탈피하여 팀원과 팀장으로 직결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이번 조직개편이 등급판정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증진하고 신규사업 개발 등의 전략적 업무수행 능력과 대외 협력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미래지향적인 기능 위주의 직제로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자조금연구원

### 2006년 자조금 발전대책 세미나 개최

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은 지난 2월 24일 농협 용산별관에서 '2006 자조금발전대책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조금연구원은 축산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조금법을 일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축산자조금법 제1조의 축산단체를 축산업자로 변경할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자조금이 품목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의원의 기능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축산

업자의 대표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 또는 법인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자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내 기존 단체가 기능을 정립해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의무자조금 시행 단체를 비롯해 수납기관 관계자들은 의무자조금 시

행 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은 이와 관련 “미국은 자조금 징수의무자인 농민이나 징수자 모두 어기면 1,000달러 내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국내 의무자조금과 관련해 징수관계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06년 축산관련 단체 정기총회

### 전국한우협회

#### 남호경 현 전국한우협회장 재선

전국한우협회 중앙회장선거에서 남호경 현 회장이 재선됐다.

남호경 회장은 지난 2월 24일 대전 사도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에서 투표참여 대의원 204명 중 148명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추진해온 한·미 FTA 추진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한우자조금 사업의 안정화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회원간의 의견 수렴과 화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1949년생으로 대구 영남고와 영남대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봉명산업(주) 도투락목장 사료과장, 삼원축산(주) 축산사업부장, 경주축협 감사와 이사 등을 역임했다.

### (사)한국오리협회

#### 신임 회장에 김만섭씨 선출

(사)한국오리협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방화

동 궁정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김만섭 현 협회 감사를 선출했다.

부회장겸 분과위원장에는 민종환(사육분과)씨, 정연우(토종오리분과)씨, 이병선(부화분과)씨, 이우진(계열유통분과)씨가 각각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정달현씨, 이재복씨가 선출됐다.

김만섭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리협회가 투명하고 회원들이 바라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05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0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신임 김남철 회장 취임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지난 3월 2일 서울 반포동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김남철씨를 선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 촉진과 개발 업무 중심에서 앞으로는 쇠고기를 포함한 전체 육류로 협회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개척 및 촉진과 아울러 원활한 내수 유통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신임 김남철 회장은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축산 연구소에서 30년간 여러 축산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협회 회원의 권익과 국내 육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임 김강식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 (사)한국육가공협회

#### 새 회장에 권태경씨 선출

육가공협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고 회원사 확대를 위해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했다.

(사)한국육가공협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32개 중 26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남부햄 권태경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권태경 회장은 “웰빙시대에 있어 육가공품은 필수식품으로서 육류의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축산업발전과 축을 같이 하며 FTA시대에 우리 농촌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육가공업을 직접 경영해온 오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인식 재고 및 원가절감과 새로운 제품개발로 부가치를 높이는 등 협회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육가공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사직에는 농협목우촌 이정호 대표 외 10인을, 감사에는 삼원농업 김남숙 대표와 알프스 식품 김재현 대표를 선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 처리업의 전문화 추세에 맞춰 회원자격을 확대하고 준회원제를 도입했다.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16대 협회장에 조병대씨 당선

제16대 종축개량협회장에 조병대 후보가 당선됐다.

(사)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16대 회장에 조병대 전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이규석씨(한우), 박충남씨(유우), 이석주씨(종돈) 등 3명을 선출하고, 이사에는 임경철씨(남해화전한우) 외 13명을 각각 선출하여 2명을 제외한 전임원이 교체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가축개량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타의 모범이 된 농가에 대해 축종별로 1인씩 생산자단체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제1회 가축개량대상을 시상했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등록사업 등 축종내에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하고 “종축개량사업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을 확대하는 등 회원농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한국사료협회

#### 올해 예산 28억6천100만원으로 확정

(사)한국사료협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동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을 28억6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축산·사료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제도의 발전적 개선도모와 축산업 및 사료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한 해외사료시장에 대한 정보수입 등 분석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사)한국유가공협회**

**신임 회장에 이규태씨 선임**

(사)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2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 매일유업 이규태 부사장을 제 10대 신임 상근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김명길 협회 상근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9% 증액한 6억3천7백42만원으로 확정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DDA·FTA체결 등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중국·미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 주요국과 해외협력 교류를 통해 최신 해외유가공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회원사 권익증진에 매진키로 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2대 위원장에 김건태씨 선출**

2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장에 김건태씨(전임 양돈협회장)가 선출됐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자조금 사무국에서 관리위원회를 열고 2대 관리위원장에 김건태씨를 선임했다. 이어 부위원장은 진길부(도드람양돈조합장)·김동환(대한양돈협회 부회장)씨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관리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자조금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양육협회**

**양육자조금 적극 추진 결의**

(사)한국양육협회(회장 김수근)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서초동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국산육용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수입육용과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육자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협회는 또한 오는 4월부터 사슴 귀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전담 추진할 도지부장 8명을 선출했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신임 임원단 구성**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이병익)는 지난 2월 27일 서울 반포고속버스터미널 내 한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예산결산(안)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으로 박천희 원앤원(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조병대 한국피지엘(주) 대표이사과 박의태 (주)압구정식품 대표이사를 각각 감사로 선임했다. 또 최광은 (주)멕시카나 대표이사, 김태진 (주)썬미트 대표이사, 오배근 (주)경우 대표이사 등을 포함 11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